

산림청에서 경북공 복원용 금강송 지원 앞장

- 산림청은 문화재청의 요청에 따라 경북공 태원전 복원에 필요한 100년 이상된 금강송 소나무 140그루를 국유림에서 직접 생산 공급할 계획임을 밝혔다.
- 아울러 산림청은 민족의 얼과 정기가 스며 있는 우리 문화재의 보수/복원에 필요한 목재를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강원, 경북지역 국유림에 분포하는 금강소나무 숲 46천ha를 「문화재용 목재 생산림」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- 산림청은 문화재청의 요청에 따라 경북공 태원전 복원에 사용될 지름 35cm이상, 길이 3.6m가 넘는 특수·특대재를 공급하기 위하여 경북 울진지역의 국유림에서 자라고 있는 100년 이상된 금강소나무 140그루를 처음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- 이들 소나무는 산림청 남부지방산림관리청 울진국유림관리소에서 4월중에 직접 생산하고 산림청 헬기를 이용하여 운반할 계획이다.
- 우리 나라 소나무는 재질이 단단하여 오래가고 잘 썩지 않아 세계적으로 뛰어난 나무로 인정받고 있으며, 우리 나라에서 목재건축으로 가장 오래된 영주 부석사의 무량수전과 안동 봉정사의 극락전의 목재도 소나무로 건축되어 우리 소나무의 우수성을 엿볼 수 있다.
- 우리 나라 국가 및 시·도 지정 문화재의 보수/복원에 소요되는 목재량은 연간('98기준) 약 17,750m³으로 대부분 국내에서 생산되는 목재로 충당되고 있다. 그러나 대들보, 기둥, 추녀 등으로 사용될 특수·특대재는 지름이 35cm이상, 길이가 3.6m이상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국산재를 공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.
- 이에 따라 산림청은 우리의 문화재 보수/복원에 사용되는 특수·특대재를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강원, 경북지역의 국유림에 분포하고 있는 금강소나무 숲 46천ha를 「문화재용 목재 생산림」으로 지정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다.